

# 초반 흥행 부진 비엔날레... 광주시, 관람객 모시기 안간힘

### '소시지 유튜브' 등 구설수로 전시에 대한 관심은 뒷전 파빌리온 특별관·나들이 코스 추천 등 다양한 홍보 고민

광주시가 개막 초반 별다른 흥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봄 조성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비슷한 시기 개막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막 10여일만에 방문객 100만명을 돌파한 것과 대비를 보이면서, 광주비엔날레의 흥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역 문화계에서는 초반 흥행 부진과 관련해, 비엔날레 개막 직전 광주시가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한 홍보영상을 통해 비엔날레를 희화화했다는 지적과 광주시장의 김건희 여사 개막식 초청 건(광주일보 2023년 4월 10일자 2면)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개막 시즌에 비엔날레의 핵심인 전시에 대한 관심이 뒤로 밀린 결과물이라는 목소리 등이 나온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 관람객은 17일 기준으로 4만 5000여명으로, 하루 평균 4000여명에 불과하다. 지난 1일 개막한 순천만정원박람회가 개막 후 12일 만에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하루 평균 7~8만명이 관람한 것

과 비교하면 부끄러울 정도로 초라한 성적표다. 비엔날레 내부에서조차 그동안 밤낮·휴일을 가리지 않고 행사 준비에 집중해 왔는데, 노력에 비해 방문객이 너무 없다 등의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도 초반 흥행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시 코스 추천에 나서는 등 다양한 홍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시는 일단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봄업을 위해 본 전시, 9개 참여국 가운데 현재 7곳이 개관한 파빌리온(특별관), 주변 나들이 장소 등 특성별로 코스를 마련했다.

'정석 보기'는 비엔날레 전체를 꼼꼼하게 둘러보는 코스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국립 광주박물관, 예술공간 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온, 무각사 등 본 전시 공간과 시립미술관(네덜란드), 은암미술관(중국), 지맵(GMAP·이스라엘), 양림미술관 등 7개국 파빌리온을 순서대로 관람하는 여정이다.

'착하게 보기'는 5개 자치구로 권역을 나눴다. 예술공간 집에서 은암미술관을 거쳐 전일빌딩 245, 평화공원-무각사-5·18 공원, 지맵-양림미술관-이



지난 7일 개막한 제14회 광주비엔날레가 비엔나 소시지를 활용한 홍보영상으로 비엔날레를 희화화하는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초반 흥행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엔날레를 찾는 관람객들이 출품 작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남 스튜디오 등 섬세하게 관람하고 주변 공원 등에서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추천 코스다.

'주말 저녁, 음악과 빛아트 즐기기' 코스에서는 지맵, 옛 전남도청 본관, 금남 나비 정원, 광주 비엔날레 전시관 등에서 밤을 수놓는 미디어아트를 즐

길 수 있다. 지맵에서는 7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장에서는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음악 공연도 펼쳐진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비엔날레를 찾는 시민과

관람객들에게 미술도시 광주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릴 예정"이라며 "발길 닿은 곳마다 예술 축제가 열리고, 문화가 일상이 되는 도시 광주에서 많은 분들이 비엔날레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연간 260일 특색있는 행사·체험 운영

###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전남GT' 등...공공체육시설 활용

전남도가 기업도시 솔라시도의 국내 유일 1등급 원형경주장(서킷)인 국제자동차경주장이 지역민을 위해 매주 특색있는 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연간 260일 이상 운영된다.

올해 6월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비롯해 10월 전남도가 주최하는 종합 스포츠축제인 '전남GT(Grand Touring)' 등 4월부터 주말마다 국내외 24회의 모터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

5월부터 모터스포츠와 레저스포츠를 접목해 관람객, 동호인이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축제인 '전남 모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베스트뷰닝카 선

발대회, 자전거대회, 마라톤대회, 서킷택시, 동호회 주행 등 일반인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기간 중 4회 운영한다.

또 5월부터 9월까지 모터스포츠 기초종목으로, 선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카트대회가 4회 열린다. 주중에는 신차 테스트, 타이어 개발, 스포츠 주행, 고성능 자동차 부품 테스트 등 자동차 관련 기업의 성능시험과 기업 행사 등으로 120여 일 이용될 예정이다. 11월엔 전국장애인체전 사이클 종목 경기장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체육시설로의 활용도 확대된다.

전남도는 국제자동차경주장을 모터스포츠 마니

아만의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 모터스포츠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했다.

카트장과 캠핑장을 중심으로 가상체험관, 드라이빙장, 키즈드라이빙체험장, 드론연습장, 네트 드벤처, 인라인스케이트장, 자전거도로 등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을 경주장 행사와 연계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곽준길 전남도 기업도시사업단장은 "모터스포츠를 중심으로 다양한 레저 및 여가문화가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육성하겠다"며 "관람객 유치 및 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전남의 중요한 자산으로서 미래 먹거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kwangju.co.kr

## 직장인 100명 중 9명 월급 100만원 미만

###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200만원 미만 23%·배달원 최다

지난해 하반기 임금근로자 100명 중 9명은 월급 100만원도 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사무원과 조리사 취업자는 증가했고, 매장 판매원은 감소했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 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10월 기준) 임금근로자 2168만4000명 가운데 월급 100만원 미만을 받은 저임금 근로자는 198만명(9.1%), 100만~200만원 미만은 308만8000명(14.2%)이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4명 중 1명꼴인 23.3%가 월급이 200만원에 못 미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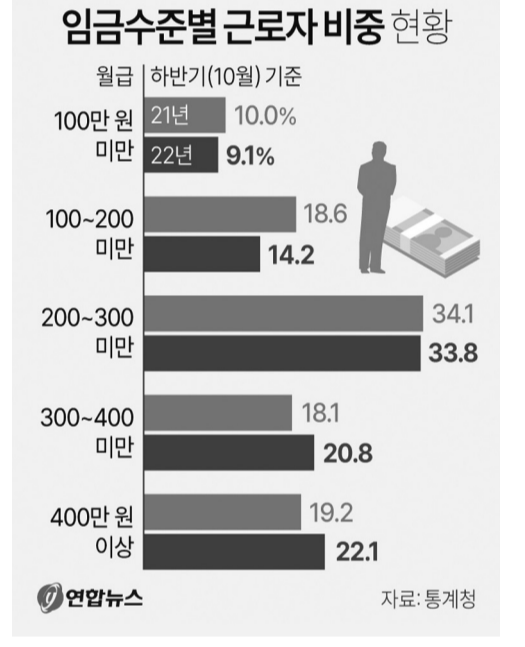
400만원 이상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478만 4000명으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2.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임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 종사자의 27.1%가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고, 서비스 종사자의 20.9%도 월급이 100만원보다 적었다.

관리자 중에서는 100만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 없었고, 81.0%가 4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직업 소분류별 취업자는 경영 관련 사무원 232만8000명(8.2%), 매장 판매종사자 163만 9000명(5.8%), 작물 재배종사자 137만3000명(4.8%) 순으로 많았다.

증가 폭은 행정사무원(8만1천명)과 조리사(7만2000명)가 컸다. 배달원 수도 45만명으로



올해 상반기와 같이 역대 최다 수준을 유지했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4만7000명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비서 및 사무보조원과 영업 종사자도 각각 3만6000명, 3만4000명 감소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경영 관련 사무원과 자동차 운전원이 많았다. 여성은 매장 판매종사자와 경영 관련 사무원 순으로 취업자가 높게 나타났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미국 LA시티칼리지에 세종대왕 동상 세운다

### 고종황제 손자 이석 황실문화재단 이사장 주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의 버몬트가에 있는 LA시티칼리지(LACC) 캠퍼스에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진다.

전북 전주에 있는 황실문화재단 이사장(고종황제 손자) 이사장과 그의 양자이자 황실 후계자로 지명된 한인 2세 사업가 앤드루 이(한국명 이상민)

임페리얼 패빌리 컴퍼니 대표는 최근 LA에서 만나 따르면 6월중 LACC 제퍼슨홀 광장 입구에 동상을 설치하기로 했다.

황실문화재단 관계자는 18일 "LACC는 이 대표의 후원으로 지난 1년 동안 세종대왕 동상 건립 작업에 착수했고, 동상 제작도 끝낸 상태"라고 밝

혔다.

동상은 높이 2m44cm(대리석 기단위 청동 재질 상반신), 폭 1.22m 크기다. 제작에는 총 5만 달러(약 6552만원)가 들어갔다. LACC 이사회가 최종 승인하면 곧바로 동상을 세울 계획이다.

황손과 황세손은 지난해 4월 LACC의 후원 요청을 받고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를 기부했다. 이 후원금은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1000명을 위한 장학금과 문화행사에 사용되고 있다. 재단 측은 세종대왕 동상이 건립되면 한국어 열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명품 매장이 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률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 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

##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민남일(461007-XXXXXX)  
• 최후주소 : 광주 북구 삼정로 10, 406동 1009호 (두암동, 주공아파트)

피상속인 망 민남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2023년344호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11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음에 따라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9일

• 상속인 : 민광희(660119-XXXXXX)  
• 신고기간 : 2023. 4. 19. ~ 2023. 6.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민광희  
광주 북구 오치동 934-26 신성빌라 2동 102호, 010-2323-3771

###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전병근(460219-XXXXXX)  
• 최후주소 : 전남 보성군 미력면 석호길 63-8  
• 등락기준지 : 전남 함평군 순천면 산남리 702번지

피상속인 망 전병근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3년130호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지 않음에 따라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4월 19일

• 상속인 : 김명숙(531110-XXXXXX)  
• 신고기간 : 2023. 4. 19. ~ 2023. 6.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명숙의 주소

### 구독문의

신문 220-0551  
예향 220-0550